



8면

치매 예방관리 본격 가동
정읍 치매안심센터 '문 활짝'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윤 4월 24일) 제255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풍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道, 동부권 특화사업 발굴·육성

동부권발전 계획 심의·의결... 도비 1800억원 투입 기준 1·2단계 문제점 개선... 지역간 균형발전 지원

전북도는 동부권지역의 경쟁력 있는 특화사업 발굴·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1·2단계 식품·관광분야에서 4대 분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도에 따르면 2020년 제2회 동부권발전위원회를 개최해 동부권특별회계(도비) 1800억원이 투입되는 2021년~25년 5개년 동부권발전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 의결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산업간융복합과 첨단ICT산업 도입을 시도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유통마케팅 강화 식품산업 고부가가치 상품화로 지역소득 창출을 지원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로 취약한 노동환경 개선, 원재료 생산·확보기반 강화를 위한 스마트팜 도입 △특히 기준 1·2단계의 사업 지역, 이월과다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사업별 MP수립, 사전협의 절차 강화 등 시군의 사업운영·관리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에 개최한 2020년 제1회 동부권발전위원회에서 5개년 사업 26개 중 23개(일부승인 4건, 재검토 19건)사업 재검토를 통해 시군별 5개년 사업계획에 대한 완성도와 실행력 제고를 보완 요구했다.

이후 동부권위원, 재정투자심사위원, 재정평가 외부전문위원과 함께 시군별 사업대상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타당성, 사전절차 이행여부, 재원조달계획, 향후 운영계획 적정성 등 8개 분야를 심층 심사했다.

발전위원회는 현지실사를 통해 △식품산업의 1·2단계 사업 개선안으로, 수요자중심 시장분석을 통한 3단계 목표설정, 명확한 성과지표 설정, 온라인 마케팅 강화 △대규모 기반조성사업 산출단가 및 기준제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 △사업지역과 이월과다 최소화 위한 사전절차 강화, 사업별 MP수립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타당성(시급성, 필요성) 보완 △지역내 유통지원과 차별화된 연계프로그램 개발 최대화 기준시설 활용도 권고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번 심층심사를 바탕으로 2021년~25년 5개년 동부권발전사업 심사대상 전체 29개사업 중 장

수 축산물 유통공시실 건립을 조건부 승인, 나머지 28개사업을 원안 의결했다.

조건부 승인된 장수 축산물 유통공

시실 건립사업은 사업비 70억, 1,320㎡ 유통공 생산시설 및 저온저장실 등 가공사실 신축사업으로 위원회는 관내 동종업체 간 시설생산 공유화 및 연계협력 등 상호간 사전협의(MOU) 선결조건 이행 등 책임있는 이해관계자 설득 대응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동부권발전위원회 최종 의결로 향후 5개년 3단계 사

업을 통해 △식품산업 포스트코로나 대응분야 4개유형 9개사업 634억원(35%) △지역특화관광분야 5개유형 13개사업 802억원(45%) △문화향유 주변화분야 2개유형 4개사업 201억원(11%) △체류형ICT(식품관광분야) 3개사업 163억원(9%)을 투자해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34회 순직교육자 추모제에 헌화하는 유가족들' 지난 12일 전주시 순직교육자 추모탑에서 열린 제34회 순직교육자 추모제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6월 둘째 주 모기채집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올해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연구원은 일본뇌염 유행예방을 위해 4월부터 주 2회 전주 소재 우사에 유문등(모기 유인등)을 설치하여 모기종별 밀도를 조사해 오고 있으며, 지난 6월 8일과 9일에 채집된 모기 중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최종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9월 24일 제주

전북도, 일본뇌염 매개모기 첫 발견

예방접종·모기회피·방제 준수 당부

전남 지역에서 작은빨간집모기가 첫 발견되어 일본뇌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이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남부지역(제주, 부산, 전남)의 1~2월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2.3~2.6℃ 상승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작은빨간집모기의 밀도가 높거나, 일본뇌염 환자 발생 등의

경우에 발령되는 일본뇌염 경보는 아직 발령되지 않았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입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폭염 인명피해 제로화 올인

올여름 기록적인 더위 예보 도, 취약계층 정책발굴 시도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전북도가 폭염 취약계층의 인명피해 제로(Zero)화를 위해 고객 중심(도민중심)의 효과적인 정책 발굴에 나선다. 도민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이를 정책으로 완성하는 양방향 소통공간인 '전북 소통대로'를 활용해 행정기관 중심에서 수립되던 정책의 한계를 탈피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에는 도내 첫 폭염주의보가 7월 5일 발표되었으나, 올해에는 6월 4일 발표되는 등 올 여름은 무더위가 빨리 시작되고 유례없는 슈퍼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독거 어르신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이 무더위를 이겨내는데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6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전북 소통대로'를 통해 설문조사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로 수렴된 도민들의 다양한 생각은 향후 폭염대응 정책에 적극 검토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실현과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도는 폭염저감시설 확보와 무더위쉼터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명피해 제로(Zero)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인명피해 제로(Zero)화를 목표로 13개 과, 4개 유관기관, 14개 시·군으로 구성된 폭염대응 전담팀(T/F팀)을 가동하는 등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폭염 취약계층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 및 폭염저감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해서는 3월부터 6월 초까지 냉방가스 보충 등 사용점검을 모두 마친 상태이다.

다만,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휴관을 권고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따라 단계적으로 개방·운영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수요자 맞춤형 폭염정책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전북 소통대로 설문조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도민 스스로가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폐기물·악취·미세먼지 감사결과 공개

전북도는 지난 12일 불법폐기물 및 악취 등 환경분야 특정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5일까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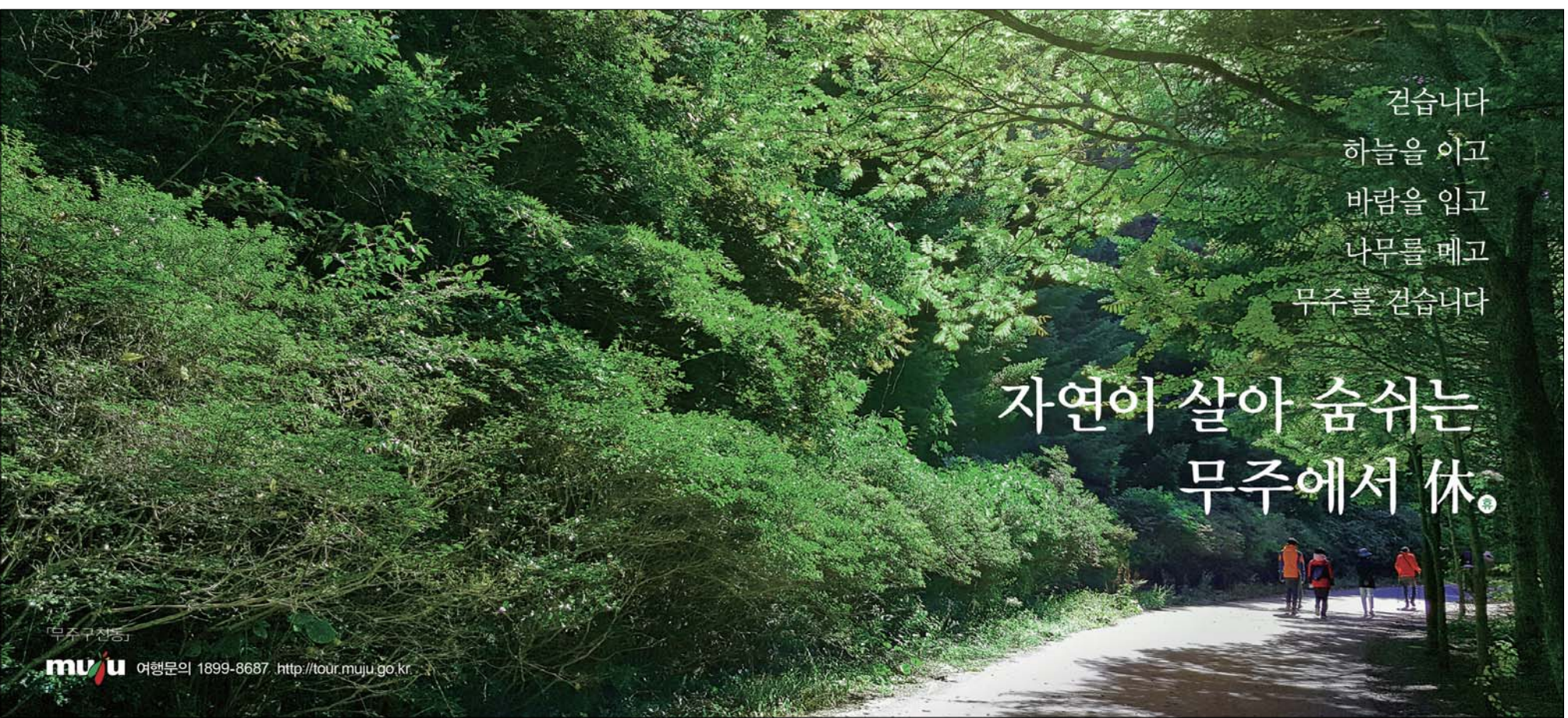
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법폐기물, 악취, 미세먼지 등 3대 유해환경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공무원의 관리·감독 및 대응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 14개 시군에 대해 81건의 행정상 처분을 하였고, 공무원 61명에 대해 징계 및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시군별 지도점검대상 시설 대비 부족한 인력현황을 감안하여 단순 업무소홀의 경우 주의와 각성을 촉구했고, 소극행정을 하거나 업무태만으로 주민불편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예산을 낭비한 경우 엄정 문책했다.

또한 폐기물처리보증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악취방지시설 설치 실태 조사 등 14개 시군으로 하여금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4건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환경보전과를 통해 추가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유호상 기자



견습니다
하늘을 이고
바람을 입고
나무를 메고
무주를 견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무주에서 休。